

2009년도 참치보호 캠페인 보고서 (1차)

# NO FISH, NO FUTURE



<사진, 2008년 12월7일 일요일 오전11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그린피스 회원 100여명이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바다보호, 참치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.  
해운대 앞바다 상공 비행기 에서 Dmitry Shoaromov 촬영>

2009년 9월 15일

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(KFEM Ocean Committee)

(내용문의;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최예용 [choiyy@kfem.or.kr](mailto:choiyy@kfem.or.kr))

## 순서

- 2009년도 참치보호캠페인 멤버
- 2008년도 활동성과
- 중서태평양 4개 공해지역의 중요성
- 2009년도 과제와 전망
- 2009년도 그린피스 방한활동
- 2009년도 에스페란자호 해상감시활동
- 2009년도 주요일정
- 2008년도 참치어획 평가

2009년도 참치보호캠페인 멤버
-------------------

- 환경운동연합
  - 최예용; 바다위원회, 총괄, [choiyy@kfem.or.kr](mailto:choiyy@kfem.or.kr)
  - 김춘이; 국제협력위원회, [kimchy@kfem.or.kr](mailto:kimchy@kfem.or.kr)
  - 김형근; 울산환경연합, 에스페란자호 해상감시활동(1차), [dongchuk@hanmail.net](mailto:dongchuk@hanmail.net)
  - 박기남; 부산환경연합, 에스페란자호 해상감시활동(2차), [fulish@nate.com](mailto:fulish@nate.com)
  - 지찬혁; 바다위원회 사무국장,
  - 정지숙; 부산환경연합
- 그린피스
  - Sari Tovanen; Greenpeace International
  - Lagi Toribau; Greenpeace Australia and Pacific
  - Karli Thomas; Greenpeace New Zealand, lead campaigner on board
  - Matt Kirkwood; Greenpeace Australia and Pacific, actions and logistics
  - Arthur Dionio; GPI, on board press officer

1. 2008년도 활동성과;

1) 제6차 WCPFC(중서태평양수산회의) 부산회의에서 남획과 불법조업이 심한 공해상조업 금지결정;

① **합의1; 중서태평양 문제의 4개 공해(국제수역, high sea pockets)중 1,2번에서 선망조업 (pulse seiner, 통조림용 참치조업으로 대형그물을 사용)을 2010년부터 금지함.**

- A 북위20도 남위20도 사이 섬나라 경제수역을 제외한 공해상에서의 조업으로, 남획과 불법어획이 심하다. 1-4번중 75%크기에 해당, 인접국가(PNA)는 8개,
- B 이와 별도로, PNA agreement 라는 것이 있는데 4개 공해를 끼고 있는 섬나라들 사이의 합의를 말하며, 이들 국가들의 EEZ에서의 조업권을 가진 외부원양산업에 대해서 1,2구역에서 조업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조업권을 발급함. 이 합의 역시 2010년부터 실시됨,
- C compatibility measure?
- D **의의; 세계 최초로 남획을 막기 위해 공해상 조업을 제한한 조치로 평가됨.**
- E 한계; 선망이 아닌 횡감용 참치조업방식인 연승조업(long liner)는 포함되지 않음. 전체 조업량의 20%가 누락된 것임. 2009년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. EEZ조업을 하지 않고 공해상조업만 하는 나라는 대만, 중국임.

② **합의2; 자원량 감소추세에 있는 눈다랑어(eyefish)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3년간 매년 10%씩 조업량을 감축하기로 함.**

- A 과학위원회의 30%감축권고가 3년간 10%씩 진행하는 것으로 완화된 것임.
- B 태평양국가들(PNA)들과 호주,뉴질랜드,미국이 동의했으나 아시아국가의 반대로 완화.
- C 이를 위해, EEZ내에서는 8-9월 산란기(spawning season) 2달간 무조건 FAD(집어기구)사용을 금지하고, 공해에서는 FAD사용을 하지 않든지(선망조업에 해당, 눈다랑어 새끼가 혼획by-catch로 잡히는 문제), 전체 어획량에서 10%를 줄이든지(연승조업에 해당) 선택할 수 있음.
- D **의의; 2001년부터 과학위원회가 황다랑어(yellowfin)와 눈다랑어(eyefish) 남획에 대한 규제조치를 제안했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상황이 악화되어오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보존조치가 취해진 것임.**

2) 한국사회에서 참치남획에 대한 문제 본격제기;

- ① 세계에서 참치잡이 원양어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한국의 원양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기가 시작됨.
- ② 국제적으로 참치남획에 의한 어족자원 감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에도 불구하고, 한국에서의 참치소비가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했다.

## 2. 참치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조업실태

### 1) 중서태평양 4개 공공해역의 생태적 중요성;



#### ① 1번홀;

- A 멸종위기의 Red back turtle(뉴기니)
- B 황새치 산란장

#### ② 2번홀;

- A 멸종위기의 Red back turtle(뉴기니)
- B 향고래가 많았던 지역(현재는 미조사)

#### ③ 3번홀;

- A 밍크고래의 산란장(breeding),

#### ④ 4번홀;

- A 바다거북,
- B 향고래,

### 2) 전체적 개념;

- ① 연승조업선은 반드시 옹저버를 태워야 함.
- ② CBD; convention of biodiversity, 2010 May Nagoya
- ③ 적도근방의 엘리뇨 현상에 의해 물고기들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음, 이에 따라 참치어 획활동도 동쪽으로 이동추세.
- ④ 중서태평양지역에서의 참치 선망조업선이 급격하게 증가추세에 있다; 이유는 대서양, 인도양 등에서의 참치조업량이 줄어들면서 태평양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.
- ⑤ 세계은행의 평가에 의하면 세계 어업계는 50억달러를 불필요한 상호경쟁으로 낭비하고

있다고, 이를 즐기고 대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투자로 돌려야 한다.

⑥ 중서태평양의 경우, PNA나라들의 조업은 전체의 20%에 불과하고 80%는 모두 외부조업 국가들이 잡아간다.

3) 전체적인 운동전략 파악;

① 국제회의 통한 보존전략; WCPFC 등 지역별협약=>CBT, CITES 등 여타의 보존협약동원

② 소비자운동;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조업방식(FAD, transshipment, IUU 등)으로 잡은 참치를 사지 않고 FAD-FREE 등 표기제도를 요구하는 것,

③ 조업선을 대상으로한 남획방지현장감시활동

④ 그린피스 홈페이지 등에 IUU블랙리스트 게재 등의 방식

⑤ WCPFC;

A 중서태평양수산회의 (참치자원량보존을 위한 국제기구)

B 현재전략; 4개의 공해상조업을 금지함으로써 남획방지, FAD와 해상전재금지

C 향후이슈; 조업선 숫자제한, 조업량 제한

⑥ CITES;

A 멸종위기동식물국가간거래금지조약,

B 대서양과 지중해의 참다랑어(bluefin)를 CITES목록에 올리려는 노력 진행중, 2010년 3월 카타르회의에 채택기대. 모나코 주도, 영국, 독일, 네덜란드, 미국 등 지지. 일본 참다랑어(훈마구로, 학명 흑다랑어) 소비량 2008년도 4.3만톤으로 세계소비량의 80%, 태평양산 2.3만톤으로 가격상승 불가피.

⑦ CBS;

A 국제 생물종다양성협약

### 3. 2009년도 과제와 전망;

1) 과제;

① 1,2번 공해구역에서의 연승조업 금지,

② 3,4번 공해구역으로의 조업금지 확대,

③ FAD(집어기구)사용금지;

A 선망조업에 사용되며 새끼(juvenile)들을 잡아들여 어족자원을 위협하는 조업방식.

B 현재는 금어기간(8-9월)에만 사용금지하고 있음.

C FAD조업량이 적게는 21%에서 많게는 46%에 이룸. 이에 대한 규제는 남획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됨. 선박에 따라 사용량이 다르지만 40대에서 최대 300대(스페인선박)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짐.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FAD 사용률이 낮다고 업계주장.

④ 해상전재(transshipment)금지

A 조업수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대형수송선이 해상에서 조업선으로부터 물량을 수거하는 방식,

B IUU 즉 불법조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, 남획을 부추기는 것으로 평가됨.

2) 각국입장;

① 안건1; 1,2번홀에서의 연승조업도 금지 - 대만이 주요 타켓,

- ② 안건2; 3,4번홀의 조업금지조처(전체1-4번 홀의 크기중 25%에 해당하며 인접국가는 7개)
- ③ 안건3; 해상전재(transshipment)금지,
  - A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헬기로 잡아야 한다고,
  - B PNA는 연승과 주낙의 전재를 이미 금지했고, WCPFC는 연승의 전재금지. (필리핀 예외)
- ④ 안건4; FAD(fish aggregation device, 집어기구)사용금지,
  - A Purse seiners;

3) 일본과 PNG의 FAD사용 양해합의 문제점

- ① 일본이 파푸아뉴기니아와 2008년 회의전에 EEZ내에서 FAD사용양해키로 했다는 내용
- ② 2008년 부산회의에서 합의된 8-9월 EEZ내에서의 FAD사용금지 내용 미준수,
- ③ 부산회의에서 일본은 공해상에서 눈다랑어 어획량 10%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.

4. **그린피스 방한활동;**

- 1) 그린피스 2009년도 중서태평양 참치캠페인 체계
  - ① GPI; Sarah Duthie->Sari Tovanen
  - ② GP Australia and Pacific; Karli Thomas->Lagi Toribau
  - ③ GP Philippine; Arthur
  - ④ KFEM; 최예용, 김형근, 김기남
- 2) 환경운동연합과 연대활동
- 3) 참치산업미팅; 동원, 신라
  - ① 논의내용
    - A 그린피스의 참치소비자대상의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참치소비 활동소개, ICCF
    - B WCPFC의 FAD 사용금지조처 이행여부와 옴저버조처 시행여부,
    - C PNA 합의에 대한 이행여부 - 공해상조업금지조처,
    - D 지속가능한 참치산업을 위한 입장교환
  - ② 신라교역;
  - ③ 동원참치;
- 4) 정부미팅; 농림수산부 국제협력과

5. **에스페란자(Esperanza)호 중서태평양 해상감시활동**

- 1) 2004,2005,2008년에 이어 4번째 해상감시활동,
- 2) 활동기간; 8월23일(일) 호주 케인스 출항
- 3) 감시루트; 호주->1홀->2번홀->바누아투->4번홀(FAD조사)->3번홀(쿡아일랜드 감시선과 공동조사)
- 4) 활동내용;
  - ① FAD문제; 건거나 그물을 끊어 물고기를 놓아준다. 인근에 FAD주인선박이 있으면 회수하여 전달.
  - ② 전재문제; 발견되면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면서 선체에 페인팅 액션시도,
  - ③ 불법조업(IUU) 발견시; 조업허가증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불법임이 확인되면 어망을 끊

- 어내면서 중단토록 유도하면서 페인팅 액션,  
 ④ 선상조사; 선장에게 설명문을 주면서 대화시도, 선상조사 요구
- 5) 환경연합 활동가 파견;  
 ① 1차; 울산 김형근 정책실장(8-9월, 호주 승선->1,2번홀 조사->바누아투 하선)  
 ② 2차; 부산 김기남 회원(9-10월, 바누아투 승선->3,4번홀 조사->쿡아일랜드 하선)  
 ③ 역할; 한국선박 조우시 통역, 조사활동 및 캠페인활동 참여,  
 ④ 환경연합 홈페이지에 활동상황 게재,  
 ⑤ 선상에서 한국언론과 전화 및 이메일 인터뷰 가능, 액션시 사진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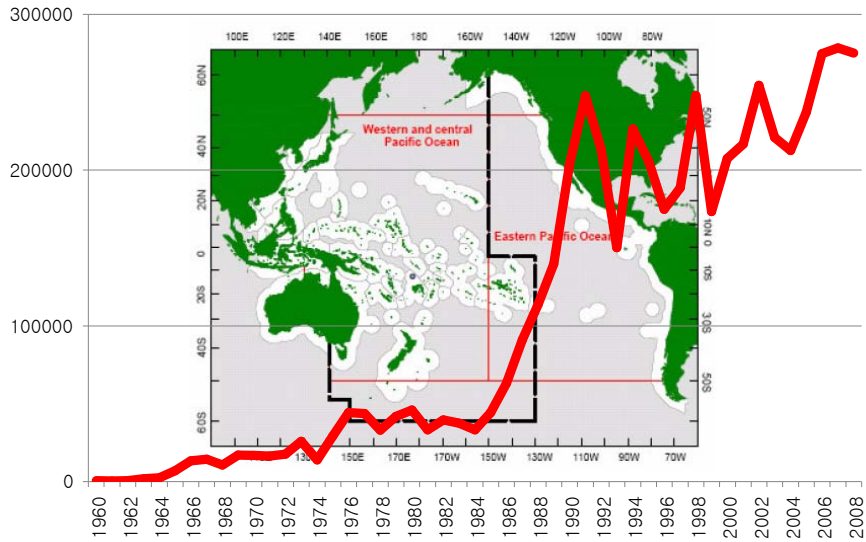
## 6. 주요일정

- 1) 8월중순; WCPFC 과학위원회(바누아투) - 눈다랑어 34-50%감축 권고
- 2) 8월14일~24일 그린피스 방한활동
- 3) 8월24일(월) high sea pockets 생물학적가치에 대한 보고서 공개(경제적 평가포함)
- 4) 8월23일~10월20일 에스페란자 해상감시활동
  - ① 9월1일~3일; PNG프로그램
- 5) 9월28일~10월3일; 생물종다양성국제협약(CBD) 전문가회의(Canada)
- 6) 10월1일~6일; Technical compliance meeting of Tuna convention(Micronesia) – IUU, FAD monitoring
- 7) 10월말; 참치시장관련 프로그램(Italy)
- 8) 12월6일(일)~11일(금)
  - ① 2009년도 제7차 WCPFC회의;
  - ② 장소; 타이티(태평양 섬나라)
  - ③ 환경연합 참여;

## 7. 2008년도 참치어획 평가

- 1) 한국의 참치생산은 총 287,059톤으로 2007년의 95.6%로 4.4%감소했다.
  - ① 참치선망(통조림용)은 249,137톤으로 작년의 97.7%로 2.3%감소했고,
  - ② 참치연승(횃감용)은 37,922톤으로 작년의 83.5%로 16.5%감소했다.
  - ③ 이러한 감소현상은 유가인상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.
- 2) 2008년도 중서태평양에서 한국 전체의 11.8%인 285,642톤을 잡아 4번째로 많이 잡는 나라였다. 선망어선은 모두 28척이다. 연승어업을 통해 잡은 가장 자원고갈이 심각한 눈다랑어(eyefish)는 13,170톤이다. 한국은 전세계 5개 해역에서의 참치조업중 중서태평양에서 전체의 96%인 대부분을 어획한다.
- 3) 중서태평양의 경우, 2008년 2,426,195톤이 생산되었고 국가별 순위는 필리핀>일본>인도네시아>한국>대만>미국>파푸아뉴기니>중국 등의 순으로 이들 9개 국가가 전체의 90.9%를 차지한다.

### KOREA TUNA PRODUCTION at WCPFC



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

### 한국의 참치생산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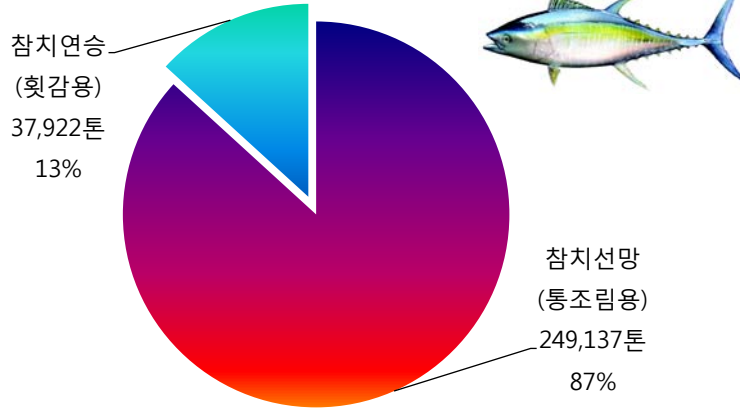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원양산업협회, 농림수산부 / 단위: M/T



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



## 2008년도 한국의 참치생산량



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

WCPFC TUNA production, 2009 (total 2,426,195)

